

롤러코스터 탄 바이오株, 공매도 과일종목 수두룩

최근 한달 공매도 과일 68곳 중 24곳 35.3% 제약·바이오 종목
삼바 시총 5조, 셀트리온 6조 ↑
시총 9위, 7위서 3위자리 위협
“임상 회생 분위기에 추가 반등”
vs “추가 급변… 투자 신중해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제약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이 제품 개발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갖 약재 속에 바이오주가 한차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도전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 급등락세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임상 실패와 기업의 제품 품질 이슈에 대한 경각심이 사그라든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신약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해졌다는 얘기도.

◆롤러코스터 바이오주, 다시 열풍?

바이오주 분위기가 심상찮다. 31일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 포털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공매도 과일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68개 중 24개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조사됐다. 전체 과일종목 중 35.3%를 차지할 정도다.

특히 공매도 과일 종목에 이번 달에 만 3년 이름을 올린 에이치엘비는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바이오주가 잠식했다. 지난달 말 각각 코스피 시가총액 9위와 7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한 달 만에 시총이 각각 5조원, 6조원씩 늘어나며 3위 자리를 위협중이다.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31일 “임상 시험은 회사 가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이슈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업체들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바이오주 전체가 강하게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 업체들이 실패 쪽에 무게가 실려다가 회생하는 듯한 분위기로 반전됐다”며 “실제로 학계에 좋은 평가를 받은 곳도 있고, 자체 판단이긴 하지만 성공했다고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어 추가 반등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오주의 투기성 매매를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 바 있다.

이해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부정적 이벤트가 있었던 대형 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 가치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바이오 기업은 파이프라인 차별화에 따라 개별 기업 투자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종우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은 “바이오주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며 “소문이나 막연한 기대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임상데이터 발표나 신약후보물질 발굴, 큰 규모의 계약금이 들어온 기술수출 등이 검증된 결과가 있는 주식만 의미 있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예비 상장 기업 관심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의 상장심사청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빠르면 연내에도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브릿

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성장성 특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사능의약품 전문기업 듀켄바이오, 당뇨병치료제 개발사업타머사이언스,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 개발업체 신테카바이오 등의 상장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상장기업의 긍정적인 기류가 예비 상장사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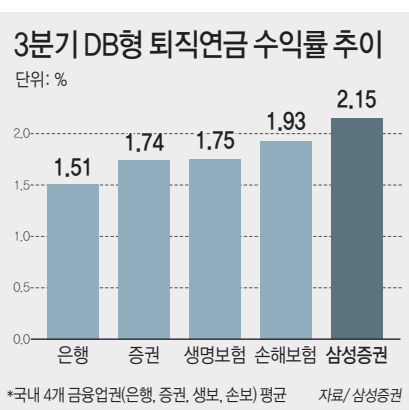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예비 상장기업 역시 시장에 입성할 때 공모가를 좋게 받길 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에이치엘비를 필두로 바이오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올해 상장 계획이 없었던 업체들도 분위기가 개선됐을 때 입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의료수요가 높은 신약을 타깃으로 초기개발과 기술이전을 했다”면서 “수익 창출도 빠르고 실패 가능성도 적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삼성증권,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

수익률 꾸준히 2% 이상 유지
‘ALM컨설팅’ 운용, 성과 비결



삼성증권이 3분기까지 집계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운용 결과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운용의 강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내 4개 금융업권(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올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부문에서 3분기 연속 ‘직전 1년간 수익률’ 증권업계 1위를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3개 분기 연속 DB형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에서 꾸준히 2%가 넘는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2.13%, 2.15%의 수익률로 전체 금융권 DB형 퇴직연금 사업자 41곳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DB형 퇴직연금 직전 1년 수익

률에서 2%대의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사는 국내에선 삼성증권이 유일하다.

삼성증권은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이 양호한 수익률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1~3분기 동안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은 직전 1년 수익률 평균이 4.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증권업계의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직전 1년 평균 수익률인 1.17%는 물론 은행의 평균 수익률인 0.55%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우수한 운용 성과 비결로는 DB형 퇴직연금 운용 전략인 자산부채종합관리(ALM)컨설팅이 꼽혔다. 자산부채 종합관리 컨설팅이란 법인고객의 퇴직부채 적립비율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편입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맞춤형 운용 솔루션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 3분기 자산부채종합관리 컨설팅으로 안정성이 높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서 “이에 따라 안정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3분기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 중, 증권사 5개사, 손해보험사 3개사, 생명보험사 2개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으며 은행은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에 오르지 못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

오늘 투자 토크콘서트

NH투자증권은 ‘가치투자에 신중국 투자를 더하라!’를 주제로 11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4층 NH아트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NH투자증권 청담 자산관리(WM)센터와 글로벌주식부가 주최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 1부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주요 지표 및 투자전략’으로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김형래 연구원이 설명할 예정이다. /손엄지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3.53대 1... 4년만에 청약 경쟁률 최고

대림산업이 경남 거제시 고현동 1102 일대에 선보인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가 1순위 청약에서 거제 지역 4년만의 기록을 세웠다.

3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988가구 모집에 총 1803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지난 2015년 5월 ‘거제 2차 아이파크 2단지’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통장을 불러모은 것.

2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에 제한이 없는 만큼 거제뿐 아니라 광역 수요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1순위 최고 경쟁률은 90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만 318건이 접수돼 3.53대 1을 기록한 전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 있다. /대림산업

용 98㎡ 타입에서 나왔다. 또한 84㎡A 타입(2.13대 1)과 84㎡B 타입(1.15대 1)도 해당 지역에서 모집세대 이상의 통장을 끌어모았다. 주택전시관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84㎡C 타입 등은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분양가는 3.3㎡당 최소 850만원, 평균 1030만원선에 책정됐다. /이규성 기자 peace@

부장님 대신 ‘책임매니저’... 호칭 간소화

현대차증권, 오늘부터 체계 개편

현대차증권은 11월 1일부터 직급 및 호칭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새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인사설명회 등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됐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기업문화 혁신활동의 일환이다. 우선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직급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6단계의 직급체계를 차장과 부장을 통합해 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또 수평적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호칭도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매니저’, 과장부터 부장까지는 ‘책임매니저’로 간소화한다. 다만 팀장, 실장 등 보직

자는 기존처럼 직책을 호칭으로 사용키로 했다. 특히 과장 이상의 책임매니저는 누구나 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개편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현대차,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지난 9월부터 이 같은 호칭을 도입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들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인사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증권은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이 아닌 역할 및 능력 중심의 새 인사제도를 통해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한화투자증권

‘내아이 첫 돈공부’ 출간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을 알면 돈이 보인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세뱃돈부터 시작하는 내아이 첫 돈공부’를 출간했다. 이 시리즈는 한화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라이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콘텐츠를 엄선한 전자책으로, 국내 최대 월정액 서비스인 밀리의서재에서만 단독 선공개 한다. /손엄지 기자

